

[시] 신라인 신문으로부터의 고별사 - 페르디난트 프라일리그라트

Socialist

Organ der Demokratie.

1849.

공개 전투에서 공개 타격은 없었네
함정만이 계속 나타났을 뿐
난 서서히 다가오는 악의를 느꼈지
저 더러운 서부의 칼미크인들!
어둠 속에는 살인의 화살이 날아오고
매복하고 있던 장난질은 내려오니-
이제 난 내 힘으로 거기 눕네
자랑스러운 반란의 시신이어!

입술에는 저항과 경련의 조롱,
손에는 번쩍이는 검,
여전히 죽어가며 외치지, "반란!"
그래서 나는 명예롭게 굴복했네.
오, 아마 내 무덤에 소금을 뿌리고 싶겠지
차르와 함께 하는 프로이센은-
허나 헝가리인과 팔츠인들은 보냈다네
무덤을 향한 세 번의 예포를!

찢어진 예복을 입은 가난한 자,
내 머리에 흙덩이를 던지네!
부지런한 손으로 던지네,
딱딱한 손으로, 못 박힌 손으로.
그는 꽃으로 만든 화환도 가져오지,
내 상처를 위로하고자.
그의 아내와 딸은 그걸 가져와
일을 마친 나에게 감아주지.

잘 가게나, 잘 가게나, 너 투쟁하는 세계여
잘 가게나, 너희들 싸우는 군대여!
잘 가게나, 너 포연으로 그을린 전장이여,
잘 가게나 - 허나 영원한 안녕은 아니네!
정신까지 죽어버리진 않았으니, 형제들!
머지않아 떨치고 일어나
곧 돌아오리라!

최후의 왕관이 유리처럼 부서질 때,
전투의 나날과 화염 속에서,
사람들이 마지막으로 "유죄!"를 고할 때,
우리는 다시금 함께 서리라!

말로, 칼로, 도나우 강에서, 라인 강에서-

언제나 충성스런 동반자는

왕좌를 파괴하는 군중이 되리니

무법자여, 반란자여!

이 시는 칼 맑스가 운영하던 <신라인 신문>이

프로이센 정부 당국의 탄압이 이어지자

자진 폐간하기로 했을 때,

1849년 5월 19일 <신라인 신문> 폐간호에서

시인 페르디난트 프라일리그라트(Ferdinand Freiligrath)가

칼 맑스의 의뢰로 써서 발표한 시이다.

<신라인 신문> 폐간호는

전부 빨간색 잉크로 발행되었으며

프라일리그라트의 시는

신문 맨 처음에 실렸다.